



도가 올해 추진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세부적으로 ▲인공어초시설 8개 해역 300ha 45억 원 ▲연안바다목장조성 5개 해역 5,450ha 60억 원 ▲수산종묘방류 5개 해역 24억 원 ▲삼시도 해역 바다숲조성 50ha 3억원 등이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어획량이 비시설지 대비 3~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보령 학성리·석대도·외연도해역, 서산 고파도해역, 당진 난지도해역, 서천 마량리 해역, 태안 도항리·외파수도해역 등 8개 해역 300ha에서 실시된다.

도는 지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사업으로 1만 8,211ha에 885억 원을 투자해 점삼각뿔어초, 돛형증식어초, 아치형어초 등 어류용 어초와 패·조류용 어초를 시설한 바 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보령 옥도해역, 서산 천수만해역, 당진 난지도해역 서천 마량해역, 태안 남면해역 등 5개 해역 5,450ha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령

외연도해역 50억원을 투자해 474ha를 조성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산종묘방류 사업으로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등 5개 해역에 24억 원을 들여 조피볼락, 참게, 넙치, 대하 등 서해에 적합한 어종 1억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보령 삼시도 해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올해 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선순환 지역경제 위해 중소기업 육성책 마련 한목소리

충남의 지속가능한 자립적 선순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1일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국가의 역할이 크고, 대기업 중심사회라는 아시아형 경제모델로써 유사점이 많다”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요코하마국립대학 ‘나카무라 코지로’ 명예교수는 “일본 역시 정부기능 및 대기업의 본사기능이 결합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미

국 포틀랜드나 핀란드 오울루의 사례 등을 교훈 삼아 과거 공업화 시대의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식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본세이케이대학 ‘오다 히로노부’ 교수는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온 ‘이와테 모델’에 주목하며,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반도체산업과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례없이 축소·재편되었고 대기업 분공장에 의존한 지역경제가 중심인 지방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중심에 이와테 지역이 있었지만, 대기업이 빠져나가 버린 자리를 누가 어떻게 이꿀 것인가를 해결과제로 삼고, 그 핵심정책을 바로 지역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으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와테 모델의 핵심은 △뿌리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집적하여 대기업은 물론 독립창업가들에게 중요한 생산체제기반을 제공 △창업에 적극적인 지역풍토와 이를 뒷받침한 지자체의 지원 △산·학·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라고 말했다.

목원대 박경 교수와 충청연 신동호 박사는 “한국 지역경제는 수도권의 본사경제와 지방의 분공장 내지 지점 경제라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외생적 발전지역인 충남은 선순환 지역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활발히 시행하

고 있지만, 향후 △본사입지의 촉진 △유치기업의 토착화 △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발전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의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으로 참여한 공주대 홍성호 교수는 “충남도내 기업 종사자의 38.5%가 대전과 수도권을 포함한 타 시도에 거주할 정도로 직주분리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무엇보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공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성과 홍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박승환 기획조사부장도 “도내 중소기업의 현황(대기업 하청, 공존, 연계성)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내 주력산업관련 중소기업들이 업종별로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창업분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충청연을 비롯한 일본 지역경제학회, 공주대 동북아통상연구소, 한국지역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도 산

업연구원이 후원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현수 충청연 회장, 장재홍 한국지역정책학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공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도내 중소기업 진흥...연구협력 불 당겼다

- 27일,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경제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30	특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충청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 · 제의사 : 장현수 : 충남발전연구원 · 축사 : 안희정 : 충청남도지사 · 축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환영사 : 장재홍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 축사 : 안희정 : 충남발전연구원
14:30~15:30	특별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사업성과를 소개한 사업계획서 - 현황의 실제, 전망, 소고 - - LSI(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사업 - 2014년 2월(연말) 실적, 주요성과, 교육, 인력양성사업, 교육 · 충청연 임직원들이 사내의 지역경제진흥원 - 지역회 운영에 대한 - - 소고 : 장재홍 (주요내용) - 인문사회대학 교수, 인문사회과학대학장 · 양의 발전전략에 대해 소개 - 소개 - 소개 - 충남을 대안으로 - - 차 : 강 (주요내용) 교수, 한국지역정책학회 회장 - 소개 : 장재홍 (주요내용) (주요내용)
15:30~16:00	공감부담
16:00~17:3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현수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 후원사 : 장재홍 : 한국지역정책학회
17:00	폐회

※ 본 행사에 한, 등록비용이 없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지역정책학회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고경호)과 '도내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2월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사업과 공동 연구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 △상호 온·오프라인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충발연은 산업경제연구부를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경호 충남경제진흥원장도 "충발연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두 기관은 “중소기업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해 업무협약의 의미를 살렸다.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여지역대 간 업무협약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지부 부여지역대(사무국장 최정하, 이하 '부여지역대')는 '동력 고무보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충발연 부설 '물환경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현장조사용으로 구입한 동력 고무보트의 이송, 운행, 안전관리 및 보관이 용이해졌다.

또한, 지역내 수환경사고의 긴급구조와 지역 봉사 등 공공목적 활용시 부여지역대에서 고무

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발연 정종관 연구실장은 “동력 고무보트의 관리 부담도 덜고, 물환경조사시 연구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양군 스포츠마케팅 효과 극대화 나섰다

- 청양문예회관서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활성화 토론회” 개최



청양군에서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적극 추진중인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청양군이 지난 2월 13일 청양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청양지역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서 청운대 최인호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김경태 책임연구원이 『스포츠대회

효과와 지역유치전략』, 배재대 박근수 교수가 『스포츠대회 사례와 청양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좌장은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또한, 토론자로는 충청남도의회 김정숙 의원, 청양군의회 심우성 의원,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선임연구위원, 청양군생활체육회 신만재 회장, 청양군체육회 이분학 사무국장, 청양군 광병훈 문화체육관광과장 등이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 스포츠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4 동거동락 전체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16일부터 1박 2일 간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충남 태안군)에서 전체 워크숍을 가졌다.

“동거동락(同居同樂),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모항항, 신두사구, 백화산, 상설시장 등 태안군의 주요 지역을 탐방하며 팀별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팀구성, 미션 선정 및 수행, 발표 등 모든 일정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만들었고, 태안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한편 이튿날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천리

포수목원 관람 및 연구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주관 특강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연구원이 시군과 보다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갈수록 양질의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록 짧은 워크숍 일정이지만 연구원 가족 모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장연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